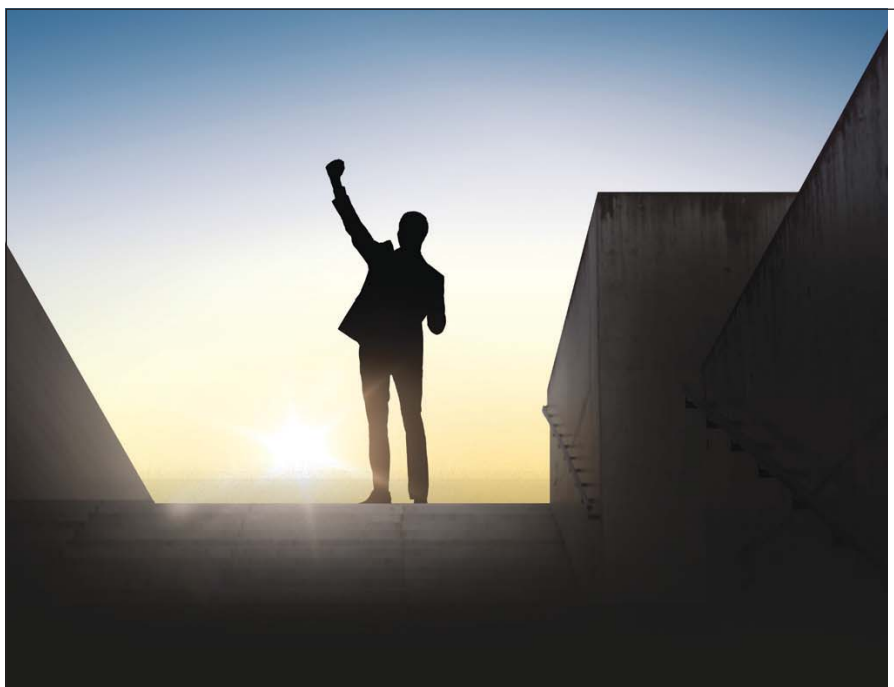

식품업계 1세대의 아름다운 퇴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후배 위해 물러서야할 때"… 경영엔 변화 없을 것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
"변화와 혁신 필요" 오너경영→전문경영인 체제로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스타벅스 커피 신화 이루고 '글로벌 전문가'에 위임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권원강 전 교촌에프앤비 회장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

국내 주요 식품기업을 이끌어 온 1세대 경영인들이 퇴진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젊은 수장으로 세대 교체 바람이 업계 전반에 불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1969년 동원산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이끌어 온지 50년 만이다. 김 회장은 "회장에서 물러서서 활약상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퇴진 선언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 세대로서 소임을 다했고, 후배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 퇴진 이후 동원그룹 경영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인 엔터프라이즈가 그룹 의 전략과 방향을 잡고 각 계열사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독립경영을 하는 기존 경영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체제 관련해서도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이 중심이 돼 경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교촌에프앤비도 오너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변환한다.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 최근 경영 퇴임을 공식 선언했다. 권 회장은 이번 퇴임 결정을 통해 회장직과 대표이사직을 모두 내려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전면 물러서게 된다. 교촌은 권 회장의 경영 퇴임에 따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너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뀐다.

권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경영 혁신 없이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교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본사 직원 및 가맹점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에는 한 사람의 회장이 아닌 보다 투명하고 전문화된 경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퇴임 결정 배경을 밝혔다.

권 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젊은 시절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점상, 해외건설 노동자, 택시기사 등 직업을 거치다 40세에 이르러서야 교촌치킨을 시작했다. 1991년 3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10평 남짓 작은 가게로 시작한 권 회장은 전국에 간장치킨 열풍을 일으키며, 교촌을 연매출 3188억의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교촌에프앤비는 권 회장 후임으로 소진세 前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선임했다. 소 신임 회장은 40여년간 유통업에 종사한 '유통의 산증인'으로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과 마케팅본부장, 롯데미도파 대표이사, 롯데슈퍼 대표,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소 회장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 확립',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 '상생의 가치 발전' 등을 향후 경영 방향으로 내세웠다.

'스타벅스 커피 신화'를 만든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가 11년 만에 퇴임했다. 이 대표는 재임기간 동안 사이렌오더, 디지털 혁신, 드라이브 쓰루 매장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1949년생인 이 대표는 1975년 삼성물산 입사했으며 이후 1999년 신세계 백화점부문 지원본부장 상무로 자리를 옮기며 신세계그룹가 연을 맺었다. 2001년 신세계 이마트부문 지원본부장 부사장, 2002년 조선호텔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07년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로 취임했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 스타벅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국내 커피전문점 가운데 처음으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7년 매출 1조2634억, 영업이익 1144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까지 3년 연속 매출 1조원과 2년 연속 영업이익 1000억원 달성했다. 이 대표 재임기간 매장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2010년 327개였던 매장수는 2016년에 1000호점을 돌파했다. 2009년 업계 최초로 선불식 충전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를 선보였고, 2011년에 모바일 사이트 결제서비스를, 2012년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확대해했다.

한편 스타벅스커피코리아 5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송호섭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영입됐다. 20여년간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며 경험을 쌓아온 글로벌 전문가다.

한편 아직까지 현역에서 활동하는 1세대 창업주도 있다.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은 고령에도 회사로 출근하면서 경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자궁경부전암 신약·흡수식 냉동기…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200社 지정

자치단체·민간금융기관과 지원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200곳을 '2019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수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기부, 지역자치단체, 민간 금융기관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모델이다.

중기부는 지역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육성하고 월드클래스 기업에 이어 히든챔피언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된 바이오리더스는 1999년 설립된 면역치료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주로 바이오신약, 바이오 소재, 바이러스연구 사업을 한다.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은 임상 3상을 승인을 진행 중인 자궁경부상 피이형증치료제(BLS-H01)와 임상 2상을 실험 중인 자궁경부전암 치료제(BLS-M07)이다.

2004년 설립된 월드에너지는 산업현장의 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흡수식 냉동기'를 육상 및 선박용으로 제조한다. 특히 '흡수냉동기 및 흡수냉온수기'는 미사용 폐열원을 활용해 냉·난방을 공급함으로써 전기식 냉동기·냉·온수기에 비해 전력 소비량을 줄인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다.

이밖에 센텍코리아, 클레어, 선택인터내셔날 등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은 향후 4년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강소기업에 4년간 2억원의 해외마케팅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에 우대 선정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업당 3000만원 내외의 사업화를 지원하며, 민간 금융기관은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CJ대한통운, 수제맥주 운송 서비스 시작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와 계약
공장서 전국 주류 도매상에 유통

CJ대한통운이 콜드체인(농산물 등 신선 식재료 유통) 물류 서비스를 시작했다.

CJ대한통운은 스타트업 수제맥주전문 제조사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와 함께 3자물류(3PL)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관련 제품을 본격 운송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내 맥주시장에서 수제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 정도인 6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제맥주도 외부유통이 가능해졌다. 수많은 양조장들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종류의 수제맥주가 매장에 판매되면서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매년 50~60%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수제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향후 2030년 10%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식품·유통 고객사들의 물류를 수행하면서 얻은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정적으로 신선도와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냉장 물류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인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의 성장과 수제맥주시장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이달 말까지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며 CJ대한통운은 공장에서 생산된 수제맥주를 전국 주류 도매상에 유통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의 대형 브루어리는 500만리터 규모의 맥즙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종류의 수제맥주를 대량생산,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기자 bada@